

## 신기리 도당제

음력 10월 3일 신길3동 신기리향우회의 마을제의

정 노 천

음력 10월 3일 오후 6시 신기리 도당 문이 열리면서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어 커튼이 벗겨지면서 도당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 두 분이 온화한 얼굴로 내려다 보셨다. 영등포에 있는 4개의 당집 중 올해는 이곳만 제의를 올리게 됐다. 이날 제의에 신기리마을 향우회(회장 이승팔) 회원들과 영등포문화원의 한천희 문화원장, 지역인사와 마을주민들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도당 뒤 무궁화나무 앞에 제수를 차리고 2022년 신기리도당제를 시작하겠다는 축의 고사 선언과 함께 제의가 진행됐다.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께 2년여 코로나의 여파로 제를 올리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기리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복덕을 베풀어 주시고 살피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는 회장의 축문이 낭독됐다.

당집은 벽돌로 지어진 한식 기와집이다. 도당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태극무늬가 그려진 문을 열면 한 칸 한옥으로 조성돼 있다. 내부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 두 분을 그려 놓은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탕화 밑에는 탁자로 된 제단이 있으며 제단 밑으로 제에 필요한 제구들이 놓여있다. 6.6㎡의 작은 도당 안의 정면에 모셔있는 신상은 산신(山神)으로 왼쪽 도당할아버지, 오른쪽엔 할머니를 그린 무신도다.



도당 안 천정 오른쪽에는 ‘응천상지삼광 비민간제오복’이라 쓰여 있다. 이 탕화의 형상은 이태원부군당의 무신도와 형태가 닮아 동일시기에 동일 화상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다. 현재의 신상은 몇 해 전에 도난당해 다시 그려 봉안한 것이다.

도당주변을 신기리라고 불렀다. 내려다보이는 들판 가운데 강이 있었는데 인천, 김포, 한강 등을 경유하는 어선들이 많이 왕래했다. 당시 배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부둣가

언덕의 고목이 된 굴참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언덕에 도당을 지어 산신을 모셨다.

도당은 한강에 인접한 셋강이 흘러 풍어제의 기능으로 서낭신을 모셨기 때문에 방학곶이와 당산처럼 부군당이 아니고 도당이다.

신기리 도당은 영등포구 신길3동 동사무소 앞, 도림초등학교 후문 옆에 있다.



탱화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 도당을 지어 산신을 모신 것은 약 430여 년 전부터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당집은 단기로 4279년(1949년)에 건립된 것이라고 상량문에 기록돼 있다. 그러다 6.25때 소실됐다가 1954년에 증건됐다. 그런데다 도로 확장공사로 도당의 터가 반으로 줄었지만 현재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제의로 과거의 행정구역명은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 신길리였다. 이것이 변화하여 신기리라 불리면서 제를 지내는 축원 때는 신기리 도당제라고 부른다. 옛날 신길리는 높은 언덕배기였는데 이곳에 도당이 세워졌다. 앞으로 내려다보이는 강 쪽으로는 허허 벌판으로 뻗어있고 인근의 고추말 고개가 있다. 실제 그 옆에도 도당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마을 노인이 알려준다.

신기리 도당제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고구려 장수왕 때 큰 폭풍이 발생하여 나라가 뒤숭숭해지자 어선의 무사 운항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포구 언덕 위의 소나무에 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1592년 후 마을 어귀에 도당을 짓고 매년 정월, 칠월, 시월에 제를 올렸다. 이곳에 도당을 세운 내력은 1591년 소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그 1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신기리 주민들은 소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도당을 세우고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셔 마을의 편안과 국태민안을 위해 해마다 세 차례에 걸쳐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 옛날엔 도당제가 3일 내내 축제를 했다고 전한다. 무당이 굿을 하고 줄타기도 하고 사물놀이 등 큰 잔치가 벌어졌던 마을의 큰 행사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축소되어 저녁 무렵 유교식 제의만 하고 끝내고 만다. 현재는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흘날에 제를 올린다. 수십년 전에는 정월 초사흘날과 칠월칠석날에 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연 1회로 바뀌었다. 대한암흑기 전까지는 무당이 굿을 주재했다고 하지만 6·25전쟁 이후부터는 유교식 제의만 거행한다.

모든 치성을 주관하는 이는 당주로,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했다. 그러나 토착민들이 이주해 나가면서 당주를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신기향우회에서 1980년대부터 당주를 선출해 소임을 맡고 있다.

신기리 도당제는 마을공동제의이지만 현재는 신기향우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신기향우회는 신기리 출신의 40대 이상 남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달 10일 정기모임을 갖고 도당제를 주관한다. 이사를 나가는 주민들이 많은 탓에 마을 주민들의 참여는 희박하고 대신 향우회원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 지역의 전통마을이 붕괴되면서 전통 공동제의가 변모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향우회,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제의를 전승하는 모습이 신기리도당제에도 보인다.

신기리도당제는 도시 지역의 변모된 공동제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타지로 이주했던 같은 마을을 성장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공동제의를 주관하고 있다. 일종의 친목회 유지에 도당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50년대까지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안녕을 위해 집집마다 얼마씩 추렴을 해서 제의를 올렸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는 사라지고 영등포구청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고 또 그날 마을 사람들이나 유지 영등포 관내 인사들이 참석하면서 올리는 성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향토문화 유산 하나 변변히 남아 있거나 보존되어 있지 않은 영등포에 그나마 향토 문화유산이랄 수 있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의는 당주 집에서 시작된다. 제물을 도당으로 옮기기 전에 간단히 당주 집에서 정성을 들인다. 삼색실과와 떡으로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하는 정도이다. 도당으로 모든 제물을 옮기고 역시 신기향우회에서 선출한 집사의 도움을 받아 제의를 거행한다. 제물은 돼지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상차림과 동일하다. 제의방식도 일반적인 제사 격식을 따른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당 밖에 나와 축문을 사르고 음복을 한다.

신기리향우회가 주관하는 이 도당제에는 영등포 관내 관공서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의 장이다.

‘이는 종교적인 행사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안녕과 우리의 시원문화적인 사료로 봐 주길 바란다’고 이승팔 향우회장은 말하고 주민 모두에게 화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다.



도당에서 3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신길3동 주민센터(전민기) 지하 강당에 푸짐하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먹는 공동체의 장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행사를 못하다가 3년 만에 치르는 행사라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마을의 행사에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것도 흔하지 않는 모습이다.

도당제를 지낸 뒤 참여한 동네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전하고 저녁 만찬이 마련된 주민센터로 가 장만한 음식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잠시지만 밥과 다과, 술을 마시며 동네 사람끼리 희희낙락한 화목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떠날 땐 시루떡 한 장 썩을 곱게 싸서 봉투에 넣어 묘제 때 떡 나눠주듯이 일일이 떡을 나누는 배려의 의미도 살렸다.

신길동에서 3~5대가 살았다는 70, 80대 노인들의 이야기는 즐거차게 이어졌다.

이곳에서 눈앞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엔 갈대밭이 짙 펼쳐져 있었고 지금의 성락교회 주변

들 가운데로 십자형의 강이 있고 그 강으로 인천, 김포, 한강을 경유하며 어선이 많이 왕래했다.

현재 비석이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굴참나무는 사라졌다. 주변으로 집들이 들어서서 한강을 내려다 볼 수는 없지만 당시 70~80년 전 이 노인들의 어린 시절엔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였다. 과거에는 영등포역 뒤쪽으로 내리뻗는 언덕이 있었고 고추말 고개로 시장 다니던 사람들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고 한다. 별판 바람과 강바람이 얼마나 매웠으면 고추말 고개라고 이름 지었을까.

당시 어린 눈으로 볼 땐 꽤 높은 고개로 높게 보였는데 지금은 폭 꺼진 느낌이라고 전한다. 그만큼 흙도 파냈을 거고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다보니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곳 천도교 건물 부근에도 도당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한다. 부근엔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하고 도림초등학교 부근은 과수원 자리였다고 마을 노인들은 추억을 되새겼다.



도당 정면으로 내려다보면 가까이 성락교회가 눈에 잡히는데 그 자리는 갈대가 무성한 하천부지라고 한다. 그곳에 십자형의 강이 있고 그 강으로 인천, 김포, 한강을 경유하며 어선이 많이 왕래했다. 노인들은 어릴 때는 여기서 수영하고 널고 겨울철엔 실개천이 연결돼 썰매를 타면 목동까지 줄 곧 나아갔다고 전한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아쉽지만 그 곳엔 집집마다 널따란 마당이 있는 저택(?)들이었는데 서울 시내가 확장되면서 땅값이 올라가자 마당을 잘라 팔고 마당이 사라지면서 골목만 늘었다고 한다. 배추밭과 갈대밭

도 메꿔서 비싸게 팔리면서 하천부지는 집들로 채워져서 십자 강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게 불과 육칠십년대였다고 한다. 말로만 듣던 그 십자강은 없어졌고 미나리깡은 훗날일이라고 귀띔한다.

이런 마을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하는 일이지지만 지금은 기원에 대한 인식들도 퇴색돼 가는 과정이고 동네사람들도 들락거리니 자연히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큰 이유라고 전한다. 물론 물길도 사라진 것도 원인이지만 지금은 하나의 문화적인 의미에서 과거 선인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삶의 방식들을 생각해보는 의미가 있다. 그러다보



이승팔 회장

니까 이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기리향후회가 조직됐고 그들 회원들의 노력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영등포구의 지원금 등으로 지켜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행사다.

이날 참석한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이런 문화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선인들의 생활상을 잊지 않고 딱딱한 현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방안을 살피고 오늘날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날 제의를 주관한 신기리향우회 이승팔 회장은 말하며 “향우회를 통해 이렇게라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다행이다. 없는 것도 만드는데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의 향취가 묻은 이 전통을 해마다 이어가야하는 우리 민족 무형의 자산이다. 애착을 가지고 동참하는 주민들과 향우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노천(시인, 우리원형연구가)



정 노 천 (시인, 우리원형연구가)